
중간관리자양성과정

역사문화탐방 귀국보고서

<요 약>

- 방문기간 : 2017. 9. 5. ~ 9. 8. (3박4일)
- 방문지역 : 중국 길림성 용정시
- 방문인원 : 29명
- 방문목적
 - 우호교류 도시 방문
 - 항일 유적지 및 백두산 방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I

연수개요

■ 연수목적

- 2017년 중간관리자 양성과정의 역사문화탐방 일정에 따라 우리 구 해외 우호도시인 중국 용정시 방문으로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여 양 도시 간 상호발전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방문으로 신비하고 장엄한 산세의 위엄과 기상을 통해 우리 민족정신과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 항일유적지 방문을 통해 우리 민족의 시련, 일본 침략전쟁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 등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역사관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연수개요

- 연수지역 : 중국 용정시, 이도백하(백두산)
- 일 정 : 2017. 9. 5. ~ 9. 8. (3박 4일)
- 대 상 자 : 29명

계	남	여	비 고
29	15	14	

■ 연수대상자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1	자치행정국	4급	윤인석	자치행정국장
2	기획예산실	행정5급	유재구	기획예산실장
3	안전총괄실	시설6급	정근주	
4	감사실	행정6급	견미옥	
5	청소과	환경6급	이명옥	
6	재무과	기계운영6급	조성일	
7	기업지원과	공업6급	온정옥	
8	농축수산과	행정6급	신희숙	
9	환경보전과	공업6급	윤희용	
10	건설과	공업6급	김성현	
11	건축과	시설6급	고덕봉	
12	도시관리과	시설6급	강기용	
13	공원녹지과	녹지6급	정효상	
14	교통행정과	행정6급	나종병	
15	토지정보과	시설6급	이주형	
16	보건행정과	행정6급	이경화	
17	건강증진과	간호6급	표현주	
18	식품위생과	보건6급	임문심	
19	간석건강관리센터	보건6급	백순열	
20	남동공단지원사업소	공업6급	서윤석	
21	남동다문화사업소	사회복지6급	김정옥	
22	구월2동	행정6급	박의영	
23	구월3동	행정6급	우정식	
24	간석2동	행정6급	신금심	
25	간석3동	사회복지6급	이응석	
26	만수4동	행정6급	이주연	
27	만수5동	행정6급	박형식	
28	논현2동	사회복지6급	유진숙	
29	논현고잔동	세무6급	김성범	

II

연수일정

날 짜	지 역	교통편	시 간	여행일정
9. 5.(화) 제1일	인천 연길 용정	OZ351 전용차량	06:20 07:00 08:55 10:30 13:30 14:30 15:30 16:30	◆ 남동구청 집결 후 출발 ◆ 인천국제공항 도착 ◆ 인천국제공항 출발 ◆ 연길국제공항 도착 ◆ 윤동주 생가 탐방 ◆ 대성중학교(윤동주 시비) 탐방 ◆ 용정시청 방문 ◆ 일송정 탐방
9. 6.(수) 제2일	이도백하	전용차량	07:30 13:00	◆ 이도백하로 이동 ◆ 백두산 탐방(서파 코스) - 백두산 천지 감상 - 금강대협곡 탐방
9. 7.(목) 제3일	이도백하	전용차량	09:30 14:00 18:00	◆ 백두산 탐방(북파 코스) - 백두산 천지 감상 - 장백폭포 탐방 ◆ 연길로 이동 ◆ 연길 도착
9. 8.(금) 제4일	연길 인천	OZ352	10:00 11:30 15:00 16:00	◆ 연길국제공항 도착 ◆ 연길국제공항 출발 ◆ 인천국제공항 도착 ◆ 남동구청 도착

III

연수세부내용

중국 용정시 일반현황

구 분	내 용
특징	길림성의 현급시(縣級市)
인구	16.7만여명(조선족 67%)
면적	2,208km ²
행정구역	5진 2향 1개 사회구역 / 시청사 소재지 : 용정시 하남가
경제현황	농업중심(약초, 인삼 등)의 산업구조
관광지	항일운동의 본거지인 윤동주 시인의 생가, 대성중학교, 일송정(정자), 해란강, 도문해관, 백두산
국내 우호도시	경기 평택시, 경남 거제시, 광주 북구,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양양군, 충북 음성군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용정시

■ 1일차 주요 활동내용

중국 길림성 연길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윤동주 시인 생가를 방문하여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성중학교에서 윤동주 시비를 관람하고 학교 내부에 설치된 사진을 관람하면서 일제시대 역사를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우리 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용정시로 이동 후 용정시청에서 양 도시간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용정시청과 한일 탄압의 본거지인 간도일본총영사관은 공사중이어서 총영사관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탐방을 하지 못하여 아쉬웠다.

용정시청을 떠나 일송정을 탐방하였는데 으며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민족이 생활양식을 유지하면서 민족교육과 독립운동 활발히 진행한 역사적 사실들을 체감할 수 있었다. 또한 공직자로서 올바른 역사관 확립의 필요성도 인식하였다.



윤동주 생가 탐방



대성중학교 탐방



용정시청 방문



일송정 탐방

■ 2일차 활동내용

백두산 등반로중 하나인 서파 코스로 등반을 위하여 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1,442개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서파 코스는 가마꾼들이 있어 보행이 어렵거나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가마를 타고 산을 올랐다.

산 정상에는 비석이 있었는데 조선과 중국을 나누는 경계로 쓰인다고 한다.

다시 버스를 타고 금강대협곡을 탐방하였는데 아시아의 그랜드 케년이라고 불린다는 금강대협곡은 화산이 만들어 낸 여러 모양의 바위와 절벽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백두산 등반 및 천지 감상



금강대협곡

■ 3일차 활동내용

3일차는 북파코스로 백두산을 등반하였다.

또한 장백폭포를 관람하였는데 폭포 주변으로 있던 관광코스가 폐쇄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아쉬웠다.

민족의 영산답게 장엄한 산세의 위엄과 기상을 통해 우리 민족정신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남북분단의 실태를 체감할 수 있었고 통일의 필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백두산 및 장백폭포

IV 느낀점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용정시는 중국이지만 주민들 상당수가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간판과 표지판 등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어 웬지 친근하게 느껴졌다.

용정시 시내에 있는 아파트들은 주상복합 형태로 지어져 있었고 비교적 건축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깨끗해 보였다.

윤동주 시인의 생가 등 항일 유적지가 남아 있는데 보존회가 생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었다.

항일운동의 거점이었던 용정시와의 우호교류가 더욱 다양하게 이루어져 청소년뿐 만 아니라 기업들이나 관광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 더많은 국민들이 일제시대에 항일 운동을 했던 선구자들을 기억하고 남북통일이 되는 날까지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전파하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